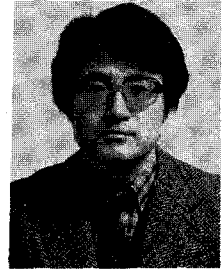


논단

# 공존의 관계를 보장하는 가운데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야



김완통  
(대림산업(주) 공무부 공사3팀 과장)

**최근** 몇년간 국내외적으로 큰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소련방의 해체, 동유럽의 개방, 경제의 불리화 등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로 인한 북한과의 해빙 무드 및 UR 협상 등은 직간접적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이라 하겠다.

기대와 우려속에는 건설업의 건설시장 확대와 외국업체의 국내 상륙으로 과연 우리의 좌표가 어딘가?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체마다 내적으로 체질변화를 준비하고 몇몇 선두업체는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단 체질변화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첨단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다.

93년 1월 1일부터 건축, 토목분야의 시공에 한해 건설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이는 그 이후 확대되어 나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에 아직도 설비업체들은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일이 빠르다고 생각할 때 구상하고 계획하여 앞으로 닥칠일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때 설비업체가 움직일 때가 지금이 아닌가 본다.

건설업체에서 매일 설비업체와 접촉하면서 건설업체의 체질변화에 대하여 그때그때 의견을 교환하지만

설비업체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조바심마저 생길 때가 있다. 국내외적인 큰변화에 대처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가 각부분에서 발생하겠지만 이 문제는 대의에 맞게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본다.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와의 관계는 영역의 침범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닌 공생공존의 관계로 서로를 보완하여 주어야 된다. 흔히 건설업체가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전문건설업체 역시 무리한 요구는 피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만이 서로의 공존을 보장하면서 밀려오는 외세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설업체는 설비업체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관리 및 경영면에서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존하는 설비업체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겠다. 또한 설비업체 역시 주어진 여건을 백분 활용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 내실있고 건설한 설비업체가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점에서 이자리를 빌어 설비업체에 몇가지를 부탁하고자 한다.

## 1. 신속한 업무처리

설비업체는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이 꼭 필요하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물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게 된다. 각 회사에서도

조직이 커질수록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전문성

설비업체는 실질적으로도 전문건설업체여야 한다. 광범위한 설비업종 중에서도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 건설업체에서 지급하는 자재와 설비업체에서 공급하는 기능인력만으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주업종으로 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자재의 선정능력부터 하자 발생 예상부분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키워야 된다.

### 1. 신기술 도입

새로운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준비를 해야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하던 방법과 다르다하여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이래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문제가 크든 작든 새로운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자세가 중요하다.

### 1. 경영 내실

설비업체의 대부분은 흔히들 영세하다고 한다. 이

문제는 다분히 건설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설비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경영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 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에 따라 동일조건 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 1. 경영자의 의식 개혁

지금까지는 직원을 어떻게 생각했든, 앞으로는 경영자와 직원간의 융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신뢰받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직원이 경영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경영자가 직원을 생산의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보살핀다면 현재의 설비업체 이직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익히 알고 있는 점이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각 설비업체가 앞으로 닥칠 거센 외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 건설업체와 힘을 합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열하였다.

설비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서도 대한설비공사협회 중심으로 각 업체의 당면한 공통의 문제해결에도 역점을 두면서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바 또한 있다고 하겠다.